



변화와 혁신! 도약하는 경주지부!

금속 경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금속분회
24.08.19
**교섭
속보**
VOL.11

발행 : 정진용 | 발행일 : 2024.08.19.(월) | 전화 : 054-748-3223 | 팩스 : 054-773-9270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파업 돌입

파업해야 안 제출하는 사측의 교섭문화 언제 바뀌나?
적게 주려다 타결시기 놓치면 비용 더 늘어날 것 경고



오증석 상무 "교섭기간내 파업에 우려, 회사 손실 최소화 당부" 정진홍 지부장 "충분한 교섭시간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무력화 시도에 개탄"

11차 지부집단교섭이 2024년 8월 19일 10시, 발레오만도지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교섭은 지난 7월 22일 이후 한달만으로 우영산업 사측에서 교섭을 요청했다. 경주사용자대표 오증석 디에스시 상무는 “교섭기간에 파업이 잡혀있어 우려가



된다”며 회사 손실 최소화를 당부하는 모두발언을 했다. 이에, 금속노조경주지부 정진홍지부장은 “40일째 파업 중인 발레오에서 집단교섭을 하는 이유는 보충교섭과 집단교섭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것과 정당한 쟁의행위를 발레오 사측이 중국산을 수입해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가 경주지역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하계휴가 후 2주간 충분한 사업장 보충교섭 시간이 있었음에도 파업을 해야 사측이 안을 제출하는 교섭문화를 개탄하며 “충분한 교섭 시간을 드렸으니 파업으로 고객사 납품이 문제라느니, 회사가 어렵다느니 운운하지 말라”고 말했다. 더불어 “우영산업지회 조합원들이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노력했고 그 결과 회사 실적이 개선되었다. 실적이 좋든 어렵든 설득하는 과정이 교섭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시작된 파업이 하루라도 빨리 종료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영산업지회 3차례 정회 끝에 노-사 의견일치

우영산업 사측은 3차례에 걸쳐 안을 제시했다. 사측 2회, 노측 1회의 정회 끝에, 경주지부는 사측의 3차 제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정진홍지부장은 “조는 책임있게 판단한다. 제시안이 부족할지라도 노동조합은 책임있게 판단한다. 비용을

구분	1차 제시안	2차 제시안	3차 제시안	비고
시급	기본급 100원 (24,000원)	150원 (36,000원)	150원 (36,000원)	240시간 적용 호봉승급 별도
일시급	100만원	120만원	120만원	9월 13일 지급
위로금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월 24일 지급
고정수당	7천원	1만원	1만원	관리직, 상주원 대상

아끼고 더 적게 주려고 하다보면 다른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해 판단하시라”로 했고, 우영산업지회 박진호 지회장은 “조합원들이 수년간 양보하고 인내한 노고에 비하면 부족한 안이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사측은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다른 사업장의 안 제시는 없음을 확인하고 11차 교섭은 11시 45분에 종료되었다.